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뷰티종사자의 인식도조사

최혜진*·차혜옥**·이두호***

본 연구는 K-뷰티의 전 세계적인 파급력에 힘입어 대한민국 뷰티인들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이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뷰티종사자들의 요구도를 알아보고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미용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샵 원장, 매니저, 디자이너, 스태프를 비롯한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반영구 화장, 두피모발관리 분야 종사자와 뷰티전공 학생, 미용직업훈련학교 교육생 등으로 장애인식, 장애수용태도,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뷰티종사자들은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장애인을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 교육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접촉경험, 재능기부를 통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장애 수용태도를 향상 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 대부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이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습득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장애유형에 따른 뷰티 전공분야별 교육이 수준별로 체계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뷰티기술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사회 참여도를 높이하고자 함이며 비장애인에게는 미용봉사활동을 통한 재능기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K-뷰티와 함께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며 이는 국내 뷰티 교육산업의 발전과 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분

*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박사과정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헤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마케팅광고학과 학부과정

야에서 모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장애인, 통합미용기술교육, 뷰티종사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 개인으로서는 행복한 삶의 목표 일 것이다. 미(美)를 추구하는 것 또한 원초적인 것으로 모든 인류의 공통된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7단계에서 심미욕구(6단계 : Aesthetic-아름다움, 균형, 질서)는 최상위 자아실현의 욕구 바로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고차원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신원식, 한은경, 2020).

오늘날 의료기술의 혁신과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평균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다양성 욕구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특히 MZ세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다양성과 허용성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박상희; 한창호, 2021). 과거 공중보건위생 차원에서 현재의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뷰티 산업은 꾸준히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 주요 소비자를 만들어낸 매력적인 산업이다. 세계 뷰티 산업은 연간 5,000억 달러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브랜드와 소매업체에 대한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하더라도 글로벌 뷰티 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산업으로 사라져가는 수많은 산업분야와는 다른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Mckinsey, 2020). 특히 뷰티분야는 사회복지와 의료, 나아가 실버산업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그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김샤샤, 2014).

장애인을 위한 모든 교육의 목표는 정상화(nom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상화는 비장애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방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들에게 미용은 외모의 변화로 인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전용수, 2007). 그러나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 등으로 인하여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프로그램이 물리적 통합에만 그치고 교육적, 사회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정선영, 2002).

여성 장애인이 희망하는 사회교육으로는 취업 관련 교육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조건으로는 이동권과 경제지원 등이 보장되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장애인 통계집, 2020). 김윤자(2021)의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2020년 특별전형(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실시하는 대학에 입학한 전문대학 25개교 95명의 장애인이 향후 취업을 위한 사회교육 훈련에 대한 조사에서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은 ‘비장애인

과 같이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는 일반 공공 교육훈련이 26.6%, 비장애인과 같이 민간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받는 교육 훈련이 15.1%, ‘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41.7%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장애인고용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기술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김민하, 최은주(2018)의 연구에서 방과 후 미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아존중감, 창의성, 인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미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전용수 외 (2007)는 장애여성을 위한 8주간의 미용재활교육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은 외모관심도와 뷰티체험활동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미용 복지가 활성화된 일본의 미용복지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 노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미용 복지 제도의 확산 또한 중요하다(공미진, 2014).

미용관련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남녀를 불문하고 취업을 위한 미용국가기술자격증 교육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실 뷰티기술교육사업은 물론 민간 뷰티자격증의 범람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또한 뷰티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나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오윤진, 2010). 다양한 직업기술 교육과정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업을 받으며 자연스러운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편 장애아동 및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연구한 김기홍(2012)에 의하면 독일 예비교사들은 인지적 요소와 관련하여 장애아 혹은 장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정의적 태도 요소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더 강하게 보였다. 또한 장애 아동에 대한 행동적인 태도요소에서 대부분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거부적이고 폐쇄적인 경향도 낮지 않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홍보와 계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에 있어서 일반교사의 인간적 자질이 더 강조됨을 확인하였다.

봉사활동 참여는 봉사자에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배워 인성을 함양시키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지은선 외, 2020).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를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 집단(미용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은 일반적으로 미용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는 낮은 편이다. 그리하여 미용복지가 복지 대상자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유용한 서비스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도달한다. 미용복지는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미용교육 및 관리, 감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박은진, 2021). 미용복지 현장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입장의 장애인들 중에는 본인이 받는 혜택을 동료 장애인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러한 동질성에 기반으로 하여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 이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박영아, 김태준, 2010)’에서 장애인 교수자의 교육활동이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이 또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미용기술교육을 비장애인 교사와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 및 뷰티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취업을 희망 하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진로탐색과 현장체험 기회의 장(場)이 될 것이며 더하여 개인의 희망에 따라 전문기술을 익힘으로써 당당하게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꿈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뷰티분야의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하여 우울증의 극복, 자기효능감의 함양, 자기만족 및 사회참여의 발판이 되는 소중한 기회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실효성을 증명하고자 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장애수용태도,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그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식도, 장애수용태도,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둘째, 통합미용기술교육에서의 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파악한다.

셋째, 장애유형에 맞는 뷰티전공분야의 범위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과 뷰티 관련 활동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상황인 현재에도 뷰티분야는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패션계는 마른 체형을 가진 모델을 선호했지만, 최근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어댑티브 패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어댑티브 패션(Adaptive Fashion)이란 신체,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불편함 없이 옷과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제작한 디자인을 뜻한다. 이렇듯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패션계에 편견을 깨고 등장한 ‘모델’들이 있다.

영국의 다운증후군 18세 소녀 엘리 골드 스테인(Ellie Goldstein)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공연을 즐겼고 다섯 살 때부터 드라마와 댄스 수업을 들었으며 2020년 현재 예식스 소재 레드브리지 대학교에 합격해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보그 이탈리아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구찌 뷰티 모델로 활동하게 됐다. 장애인 모델 전문 에이전시이자 엘린의 소속사인 지베디 매니지먼트사(Zebedee Management)는 패션 및 미용 광고 모델 중 장애인의 비율이 0.01~0.02%에 그친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그의 활동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장애인 모델도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국민일보, 2020). 캐나다 출신의 위니 할로우(Winnie Harlow)는 4세때 부터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 일부가 희게 보이는 희귀 난치성 피부 질환인 백반증 환자로 따돌림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모델이라는 꿈을 가지고 미국 프로그램 ‘넥스트 톱모델’에 출연하여 일약 스타 모델로 떠올랐다. 현재 전 세계 런웨이를 누비며, 보그나 엘르, 코스모폴리탄 같은 유명 잡지에서 활약 중이며 본인을 괴롭힌 흰반점을 자신만의 매력으로 바꿨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도 이 병을 앓았으며, 생전 이로 인해 “백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렸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영국 출신의 모델 모피는 양 눈이 똑바로 한곳을 향하지 못하는 시력 장애인 ‘사시’이다. 신체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학창 시절 동안 안경을 쓰고 다녔지만 본인은 ‘FUNNY EYE’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술도 생각했지만 위험성이 높아 포기해야 했다. 현재 그녀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수많은 사진작가와 촬영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 근위 대퇴골의 부분적 결손 장애(PFFD)를 갖고 태어난 잭 아이어스는 16살에 결국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다부진 몸, 흰칠한 키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 그는 모델에 도전했지만 옷보다 다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으나 멈추지 않고 도전한 끝에 절단 장애인 최초로 뉴욕 패션 위크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이후 유명

남성잡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남자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영국에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동 모델 활동을 시작한 데이지 메이 드미트리(daisymay_demetre)는 두 다리가 아닌 의족을 한 모습으로 패션쇼에 올랐다. ‘비골 무형성증’이라는 종아리뼈가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생후 18개월에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달고 걷는 법을 배웠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룬 데이지는 정형화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미를 뽐어내고 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나타샤 쿠라모바는 홍채와 피부, 머리칼 등 온몸이 새하얀 알비노 증후군을 앓고 있다. ‘백색증’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알비노 증후군은 멜라닌 색소의 분포와 합성 대사과정에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실명에 가까운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있으나 이러한 애로사항을 딛고 모델이 되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담긴 화보는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듯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 패션계에 장애인들은 편견을 깨고 미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데일리블로그, 2020).

K-뷰티의 종주국인 국내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의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열린 2021장애인 문화예술 온라인축제 ‘다이버시티 컬렉션 ‘아름다움이 스며들다’ 패션쇼’는 주목할 만하다. 평소 장애인의 의상에 대한 욕구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여성 시각장애인은 왜 원피스를 선호하는지’(상하의 조화를 맞추기 어려움), ‘왜 색상이나 컬러가 과하거나 두드러지는 의상착의를 선호 하는지’(뭔가가 묻어도 알아차리기 어려움),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목이 넓은 셔츠나 품이 큰 의상을 선호하는지’(혼자 입을 수 있는 옷, 탈착의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의상 선호)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장애인, 그리고 직립 성인의 신장과 신체를 중심으로 의복들이 제작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이다(열리어답터뉴스, 2021).

본 연구에서의 장애인의 뷰티관련 활동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외모관리행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뷰티분야를 체험하고 나아가 전문기술을 익힘으로써 개인의 취미활동을 넘어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인 자립의 발판으로서의 미용기술교육 활동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 통합 미용기술교육

미용교육이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과학적, 예술적, 보건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측면의 이론에 기초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식과 인성, 숙련된 기술을 겸비하여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외모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며(한영숙, 1997), 이러한 미적인 창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김춘자, 1998). 국내의 근대적인 미용교육은 1928년 설립된 경성미용학교를 시작으로 이후 사설학원에서 미용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김춘일, 송선영 1999). 63년이 지난 1991년 부산 동주여자전문대와 강릉 영동전문대에서 전문대학으로는 최초로 미용관련학과가 개설되면서 정규학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2006년에 115개교의 전문대학에서 미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김순옥, 2006). 광주여자대학교 등 17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 미용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에서도 미용관련 석사학위자가 배출되고 있다. 2000년 3월 부산미용고가 개교, 고등학교에서도 미용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미용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과학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생물학·보건학 등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 내고 있다(김진수 2003). 하지만 대부분 미용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특기적성의 개발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용을 전문교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김미녀 외, 2003),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교육은 사설학원에서의 직업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미용교육도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직업과 연관된 분야이며(김정희, 김혜수, 2002), 흥미유발을 위한 체계적이지 못한 취미교실 수준의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미용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심동적 행동을 변화시켜 자아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미용행위는 자신을 아끼고 신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창조적 표현, 사회성, 협동심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배, 이외숙, 2015). 따라서 미용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서 전문기술의 습득, 적성의 향상, 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며 인성발달과 연관이 있는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권선진, 1997) 성인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교육이야말로 대인관계 및 자기표현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전용수, 2007).

본 연구에서 통합미용기술교육이라 함은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반영구화장, 두피모발관리 등 해당 뷰티분야의 전문기술교육을 의미하며 강사와 장애인 학생, 장애인의 가족인 비장애인 학생으로 구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들의 장애인식도, 장애수용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고 실무교육 이전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미용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 뷰티전공 대학원생, 미용직업훈련학교 교육생 등으로 이들은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자원봉사자로서, 잠재적인 기술교육 강사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식은 남선화(2021)와 고대선, 윤민수(2021)의 연구를 참고 하였으며, 장애인 수용태도는 오순란(2014)의 연구를 참고, 통합미용기술 요구도는 김동규(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 후 자기기입식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일반적인 특성은 김현정(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의 연구의도에 따라 수정, 보완 후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였으며 공동연구자들이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였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 중 유효한 320부를 데이터로 채택,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각 변수의 개념을 도출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해당분야의 통계자료, 인터넷 포털검색, 블로그, 단행본, 학술정보지, 학위논문 등의 활용과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병행하여 실증연구를 시행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18.0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술통계방식으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분석을 실시하였고 뷰티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 항목에 대한 집단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6.9%, 여성 83.1%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20.6%, 30대 16.6%, 60대 15.6%, 20대 11.3%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을 살펴보면 헤어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 12.8%, 네일아트 8.8%, 메이크업 8.4%, 두피모발관리 2.5%, 반영구화장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책은 원장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생 20%, 디자이너 16.6%, 매니저 8.8%, 스텝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경력은 20년 이상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3.8%, 10년 이상이 15.3%, 5년 미만이 14.7%, 10년 미만이 13.4%로 나타났다. 미용봉사활동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이 18.1%, 5년 미만이 15.0%, 3년 미만이 14.7%, 10년 미만이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헤어 전공자로 경력 20년 이상의 뷰티샵 원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우리나라 뷰티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용봉사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교육생을 비롯한 미용봉사활동을 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현기(2018)의 ‘중년 이후의 자원봉사활동 변화와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은 40대 후반 피크를 보인 후 급격히 하락하여 50대부터 70대 후반까지 완만한 하락 상승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2년 후 지속 확률은 약 31.2%이며 중단 확률은 약 68.9%로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자원봉사활동은 오히려 안녕감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여옥(2019)의 연구에

서 확인된 미용봉사활동 현장에서 요구도가 높은 분야가 헤어미용 분야이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전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사활동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헤어종사자들을 위한 혜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인구통계학적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6.9
	여	83.1
연령	20대	11.3
	30대	16.6
	40대	20.6
	50대	35.9
	60대	15.6
전공	헤어	66.6
	피부	12.8
	메이크업	8.4
	네일아트	8.8
	반영구화장	0.9
	두피모발관리	2.5
직책	원장	50.6
	매니저	8.8
	디자이너	16.6
	스텝	4.1
	교육생	20.0
경력	1년 미만	23.8
	5년 미만	14.7
	10년 미만	13.4
	10년 이상	15.3
	20년 이상	32.8
미용봉사기간	1년 미만	42.5
	3년 미만	14.7
	5년 미만	15.0
	10년 미만	9.7
	10년 이상	18.1
계	320명	100%

2. 기술통계분석 결과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대부분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이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들의 장애인식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성룡, 홍은경(2018)의 ‘장애인관련 봉사활동 수업을 통한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장애인식 및 장애인수용태도에 대한 변화’ 연구에서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은 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장애인식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표 2〉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식

설문 문항	M	SD
나는 장애인을 한 사람의 고귀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4.50	.796
나는 장애인에게 동정보다 공감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4.41	.829
나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2	.742
나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45	.786
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상과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5	.897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4.58	.668
장애인이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4.53	.703
장애인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48	.743
장애인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지원이 설계되어야 한다.	4.50	.717
장애인의 지체된 학업성취 수준은 교사의 노력으로 보상 할 수 있다.	4.12	.951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교수학습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4.42	.763
장애인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교사의 노력은 중요하다.	4.48	.751
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52	1.041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 대부분 ‘보통이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송수지, 김정민(2008)의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연구에서 특수교과목 이수 여부, 대학에서의 통합교육 경험, 장애인 친.인척 여부, 장애인관련 봉사활동 경험 등에 따른 장애인 수용태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뷰티종사자의 실질적인 장애인관련 봉사활동 경험, 통합교육 경험, 등 경험적 요인에 따라 영향

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영미, 진혜경(2021)의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지식습득에 앞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장애수용 태도 증진에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접촉 경험이 장애수용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더 긍정적인 장애 관련 경험을 증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과 교류로서 통합미용기술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표 3〉 뷰티종사자의 장애수용태도

설문 항목	M	SD
나는 뷰티샵에서 장애미용인에게 서비스를 받아도 편안할 것이다.	4.44	.766
뷰티샵에 장애미용인이 있다면 많은 혼란을 발생 시킬 것이다.	2.68	1.03
장애미용인은 대부분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2.77	.993
장애인이 미용을 한다면 위생상태가 불결 할 것이다	1.99	.911
뷰티샵에서 장애미용인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것이다.	2.13	.943
장애미용인도 미용승급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3.90	.860
장애미용인도 뷰티샵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3.74	.867
장애미용인이 일하기 쉽게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뷰티샵에 설치되어야 한다	3.96	.914
장애미용인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4.23	.778
장애미용인도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질을 잘 살려주면 뷰티샵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4.22	.727
장애미용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12	.789
장애미용인도 다양한 모습의 일부로 생각해야 하며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4.28	.771
장애를 가진 미용인과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다.	2.08	.971
장애미용인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어떤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2.41	1.076
장애미용인을 만날 때 그들에 대해 특별한 온정을 느낀다.	3.18	.871
만약 나의 친구가 나에게 장애미용인을 소개시켜 준다면 나는 불쾌 할 것이다	2.19	.917
장애미용인을 접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의자 차, 의수 등에 거부감을 느낀다.	2.28	1.027
장애미용인은 나와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힘들다.	2.24	.976
나는 장애미용인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76	.838
만일 내가 장애 미용인이라면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3.15	.974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더라도 미용 일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2.56	1.078
장애인들은 그들의 손상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손재주)에서 비장애인들 보다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3.45	.873
장애인들이 미용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3.56	1.049
나는 청각장애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서비스 제공시 의사소통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필답을 통한 의사소통 및 수화사용).	3.70	.950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네일아트 기술을 받을 수 있다.	3.92	.953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반영구 눈썹 기술을 받을 수 있다.	3.74	1.103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두피모발관리를 받을 수 있다.	3.87	.982
나는 시각장애(저시력) 미용인에게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43	1.072
나는 자폐장애 미용인이 미용서비스 제공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12	1.118
나는 언어장애 미용인이 미용서비스 제공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74	.962
나는 소아마비장애 미용인에게 헤어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47	1.102

뷰티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대부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이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습득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용식, 권순신(2013)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에서 장애이해교육이 시간을 무조건 많이 제공하기 보다는 4주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장애유형에 따른 뷰티 전공분야별 교육이 수준별로 체계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뷰티종사자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

설문 문항	M	SD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83	1.060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3.83	1.024
미용기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93	.985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6	.882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14	.889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10	.944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3	.969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관한 평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93	.966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3	.969
지역별로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98	.976
향후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다.	3.86	1.014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0	.962
장애인 and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04	.964

3.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표 5〉 장애인식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성분	공통성
장애인이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891	.795
나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76	.768
장애인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지원이 설계되어야 한다.	.873	.763
나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71	.759
장애인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865	.748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863	.744
장애인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교사의 노력은 중요하다.	.845	.713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교수학습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788	.621
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상과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66	.586
나는 장애인에게 동정보다 공감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757	.573
나는 장애인을 한 사람의 고귀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747	.558
장애인의 지체된 학업성취 수준은 교사의 노력으로 보상 할 수 있다.	.696	.485
고유치	8.352	
분산(%)	64.245	
누적(%)	64.245	
Cronbach's α	.952	
Total Cronbach's α	.946	
KMO = .947 $\chi^2=3625.435$, df=78 $p<.001$		

〈표 5〉는 장애인식 12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MO 지수는 .947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X^2=3625.435$, $p<.001$ 으로 변수 간의 상관성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편 고유치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1개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전체변량은 64.245%의 설명력을 보였다. 장애인식 질문지는 13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13번 문항은 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한 문항은 제거한 후 최종 12문항이 적용 되었다. 한편 문항들의 신뢰도 값은 .95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표 6〉 장애수용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성분		공통성
	요인1	요인2	
나는 자폐장애 미용인이 미용서비스 제공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64	-.071	.588
나는 청각장애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서비스 제공시 의사소통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필담을 통한 의사소통 및 수화사용).	.739	-.217	.594
나는 언어장애 미용인이 미용서비스 제공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35	-.271	.613
장애인들이 미용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733	-.169	.566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두피모발관리를 받을 수 있다.	.727	-.270	.602
나는 소아마비장애 미용인에게 헤어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3	-.127	.524
나는 시각장애(저시력) 미용인에게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99	-.148	.511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678	-.250	.523
장애인들은 그들의 손상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손재주)에서 비장애인들 보다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674	-.009	.454
장애미용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664	-.250	.504
나는 지체장애(하지장애) 미용인에게 네일아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652	-.340	.540
장애미용인도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질을 잘 살려주면 뷰티샵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643	-.418	.588
장애미용인도 뷰티샵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621	-.321	.488
장애미용인이 일하기 쉽게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뷰티샵에 설치되어야 한다.	.612	-.209	.418
장애를 가진 미용인과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142	.800	.661
장애미용인은 나와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힘들다.	-.066	.790	.628
장애인이 미용을 한다면 위생상태가 불결 할 것이다	-.054	.780	.612
뷰티샵에서 장애미용인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것이다.	-.069	.769	.596
만약 나의 친구가 나에게 장애미용인을 소개시켜 준다면 나는 불쾌 할 것이다	-.294	.758	.661
장애미용인을 접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의자 차, 의수 등에 거부감을 느낀다.	-.225	.719	.567
장애미용인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257	.664	.507
뷰티샵에 장애미용인이 있다면 많은 혼란을 발생 시킬 것이다.	-.258	.647	.486
장애미용인은 대부분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122	.646	.432
고유치	10.957	3.712	
분산(%)	39.133	13.258	
누적(%)	39.133	52.390	
Cronbach's α	.935	.908	
Total Cronbach's α		.813	

KMO = .931, $\chi^2=5847.598$, $df=378$, $p<.001$

〈표 6〉은 장애수용태도 28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MO 지수는 .931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chi^2=5847.598$, $p<.001$ 으로 변수 간의 상관성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편 고유치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2개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전체변량은 52.390%의 설명력을 보였다. 장애수용태도 질문지는 31 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오순란(2014)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장애미용인에 대한 수용태도 전체 31문항 중 1번, 6번, 9번, 12번, 15번, 19, 20번, 28번 문항은 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한 후 최종 23문항이 적용 되었다. 한편 문항들의 신뢰도 값은 .90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표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성분	공통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36	.87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18	.84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02	.8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9	.80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7	.8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5	.80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4	.80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에 관한 평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90	.792
지역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85	.783
미용기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876	.767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847	.717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다.	.846	.716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미용기술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842	.709
고유치	10.228	
분산(%)	78.675	
누적(%)	78.675	
Cronbach's α	.977	
Total Cronbach's α		.977
KMO = .964, $\chi^2=5475.119$, $df=78$, $p<.001$		

〈표 7〉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 13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MO 지수는 .964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치는 $X^2=5475.119$, $p<.001$ 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편 고유치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1개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전체변량은 78.675%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에 대한 질문지는 김동규(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13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한편 문항들의 신뢰도 값은 .97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4. 뷰티종사자 특성에 따른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의 집단별 평균분석

〈표 8〉은 뷰티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평균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한 뷰티종사자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8〉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에 따른 집단별 평균분석(n=320)

구 분	분류	N	M	SD	F(p)
성별	남자	54	4.74	1.025	3.619(.058)*
	여자	266	3.77	1.061	
연령	20대	36	3.86	1.125	1.139(.338)
	30대	53	3.66	1.055	
	40대	66	3.70	1.202	
	50대	115	3.87	1.039	
	60대	50	4.04	.832	
전공	헤어	213	3.78	1.055	2.280(.047)**
	피부	41	3.93	.932	
	메이크업	27	4.15	.907	
	네일아트	28	3.43	1.345	
	반영구화장	3	4.67	.577	
	두피모발관리	8	4.38	.744	
직책	원장	162	3.81	1.064	2.724(.030)**
	매니저	28	3.89	1.133	
	디자이너	53	4.17	.914	
	스텝	13	3.85	.899	
	교육생	64	3.53	1.098	
경력	1년 미만	76	3.61	1.096	4.322(.002)**
	5년 미만	47	4.30	.858	
	10년 미만	43	4.02	1.012	
	10년 이상	49	3.88	1.111	
	20년 이상	105	3.67	1.044	
봉사기간	1년 미만	136	3.74	1.090	1.813(.126)
	3년 미만	47	3.70	.998	
	5년 미만	48	4.06	1.060	
	10년 미만	31	3.65	1.018	
	10년 이상	58	4.03	1.025	

p* < 0.1, p** < 0.05, p*** < 0.001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 $F=3.619$, 유의도 .058, 연령에 따른 요구도는 $F=1.139$, 유의도 .338, 봉사활동기간에 따른 요구도 $F=1.813$, 유의도 .126의 결과를 보여 성별과 연령, 봉사활동기간에 따른 집단별 평균분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F=2.280$, $p<0.05$), 직책 ($F=2.724$, $p<0.05$), 경력 ($F=4.322$, $p<0.05$)에 따른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공과 직책, 경력에 따라 지각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공, 직책,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집단별 평균분석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비교적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현장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도 충분히 전문 미용기술을 익히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미용기술교육의 자원봉사자로서, 전문기술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미용학 관련 박사과정이 있으며 수많은 유학생들이 뷰티를 전공하기 위해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미용기술교육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용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 뷰티전공 학생, 미용직업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장애수용태도,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종사자의 장애인식도는 ‘매우 그렇다’로 확인되었다. 이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뷰티종사자들은 장애인식이 매우 높으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장애인식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뷰티종사자의 장애수용태도는 ‘보통이다’로 확인되었다. 이는 뷰티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장애관련 봉사활동 경험, 통합교육 경험, 등 경험적 요인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과 교류로서 통합미용기술교육의 필요

성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뷰티종사자의 통합미용기술교육 요구도는 대부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이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습득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장애유형에 따른 뷰티 전공분야별 교육이 수준별로 체계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인 차원인 통합미용기술교육과정에서 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범위를 조사하였다.

박선미(2013)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성과분석’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은 2010년까지는 여성장애인이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기능습득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에 기반 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히,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장애유형과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전문 실업교육이 가장 낮은 선호도 보였고 이는 주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는 결과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욕구는 있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개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동기부여가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단순한 취미, 여가를 위한 참여자의 욕구로 인해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통합미용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프로그램 내 자원봉사자나 가족의 비중이 10% 이상 차지하는 기관이 12개 중 5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자원봉사자나 가족의 동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미용기술교육의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인 학생, 장애인 가족인 비장애인, 미용기술교육 강사인 자원봉사자 등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실기 수업이 가능한 뷰티전공분야별 수용한계의 범위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나 인터넷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기준이나 표준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문항을 작성하여 해당 뷰티전공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뷰티 산업현장에서 생계를 위한 미용기술에만 전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추후 설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해있는 각종 미용협회들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 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수업의 대상자인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문을 통하여 희망하는 뷰티 분야별에 대한 자료를 마련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언점은 박원경, 최성규(2012)의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미용기술교육에 대한 지역사회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관심이 필요하며, 학교나 지역사회 등의 특정 주체의 노력만이 아닌 지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지원 주체들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들 지역사회 및 관련 주체들의 연계를 통한 통합미용기술교육의 활성화와 전문미용기술 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뷰티전공분야별 요구 범위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에 필요한 사전 자료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K-뷰티와 함께하는 글로벌화를 향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미용기술교육으로 출발하기를 바라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옥. (2019). 미용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미용복지사 인식에 관한 연구 ."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울
- 고대선, 윤민수. (2021). 태권도지도자의 장애인 지도행동 예측: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적용.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47-53.
- 공미진. (2014).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일본 미용복지사의 활동에 대한 고찰 연구. 국제보건미용학회 학술컨퍼런스, 7-7.
- 국민일보 네이버뉴스. (2020. 7. 4.). "좋아요 80만개" 구찌 모델 된 18살 다운증후군 소녀",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5&aid=000133836>.
- 김기흥. (2012). 장애아동 및 통합교육에 대한 독일 예비교사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11.1 : 5-31.
- 김동규. (2011). 재활 및 장애 관련 종사자들의 장애인 운전재활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경상북도.
- 김민하, 최은주. (2018). 방과후 미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의 창의성, 인성 및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9.4 : 69-79.
- 김샤샤. (2014). <http://wbaa.kr/%EC%A0%84%EB%AC%B8%EC%9C%84%EC%9B%90-l-%EA%B9%80%EC%83%A4%EC%83%A4/?cat=172/> <검색일, 2021.11.8>
- 김영미, 진혜경. (2021).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 185-194.
- 김영배, 이외숙. (2015). 공무원들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태도 및 미용교육 필요성 인식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6.2 : 141-160.
- 김윤자. (2021).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2-23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서울
- 김춘자. (1998). 국내 피부미용관리사의 교육 및 업무실태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현정. (2021). 뷰티 서비스전문가의 자기관리 측정모델 개발.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서울
- 남선화. (2021). 음악치료사의 장애인식이 실천적 지식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구조 관계. 한국

- 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2.1 : 97-116.
- 데일리블로그. (2020. 8. 2.). “편견을 깨다! 역경 딛고 슈퍼 스타로 발돋움한 모델 1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8913173&memberNo=15460571&vType=VERTICAL>.
- 마성룡, 홍은경. (2018). "장애인관련봉사활동 수업을 통한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장애인식 및 장애인수용태도에 대한 변화."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8 : 241-248.
- 박상희, 한창호. (2021). MZ세대를 위한 제너러티브 디자인의 다양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7. : 188-200.
- 박선미. (2013).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성과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 대학원, 경상남도.
- 박영아, 김태준. (2010).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이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7, 61-77.
- 박원경, 최성규. (2012). 청각장애학생의 전환관련 요인 및 특성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 611-644.
- 박은진. (2021). 미용복지 법제화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상남도.
- 송수지,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1 : 83-99.
- 신원식, 한은경. (2020). 한국 시니어 소비자의 욕구 특성 분석: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3), 389-411.
- 오순란. (2014). 장애미용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 오윤진. (2010). 시각장애인 역학인 양성 직업재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시각장애연구, 26.4: 93-117.
- 유용식, 권순신 (2013).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 508-517.
- 이현기. (2018). 중년 이후의 자원봉사활동 변화와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20.4 : 131-151.
- 임예직. (2021).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경기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통계집. (2020). 173-174.

전용수. (2007).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구

전용수, 김장순, 박천만. (2007).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여성장애인에 미치는 효과 - 청각장애 여성과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3.3 989-1000.

정선영. (200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127-163. 1차 사후조사와 6개월 이후 2차 사후조사의 비교분석, A 6 months Follow-up Study.

지은선, 손미선, 심가가. (2020).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26.1, 100-107.

얼리어답터뉴스. (2021. 9. 2.). “2021장애인문화예술온라인축제 ‘다이버시티 컬렉션 ‘아름다움이 스며들다’ 패션쇼”, <https://www.eanews.kr/news/605252>.

양백산. (2020. 5. 12.). “Mckinsey: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뷰티 산업의 변화”, <https://blog.naver.com/yong940153/221958308543>.

원고접수 : 2021. 11. 14.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4.	게재확정 : 2021. 12. 20.
----------------------	------------------------	----------------------

Abstract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Beauty Workers on the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of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Choi Hyejin*·Cha Hyeok**·Lee Dooho***

Before proving the potential of Korean beauty people thanks to the global impact of K-beauty,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needs of beauty workers for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for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nd to prove its effectivenes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selected as beauty shop managers, managers, designers, staff, hair, skin, makeup, nail art, semi-permanent makeup, scalp and hair care, beauty major students, and beauty vocational training school trainees with experience in hairdressing volunteer activities. In addition, the awareness of the disabled, the attitude toward accepting the disability, and the demand for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survey, beauty workers had a high awareness of the disabled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volunteering, but showed a moderate level of attitude toward accepting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ttitude of accep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active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empathy, contact experiences, and talent donations with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In addition, most of the responses to the demand for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were 'yes'. see. It is believed that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y

* Hansung University Media Design Department, Beauty Design Management, Doctoral Program, New Media Advertising and Promotion, Master's Doctoral TA Assistant, Barber

** Master's course in Hair Design,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Marketing and Advertising, Undergraduate Course, Former Hairdresser, Disabled, Total Beauty Consultant

stemized standard for education for each beauty major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oaden soc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the disabled, improve positive self-efficacy through various beauty technology education, and increase social participation.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K-Beauty will establish itself as an integrated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ogether with K-Beauty.

Keywords : Disabled People, Integrated Beauty Technology Education, Beauty Workers